

제18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 모집

10월 20일부터 9박 10일, 일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한국어항협회는 18차 해외 어촌어항 조사단 파견 계획을 수립,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어촌어항관련 공무원, 시공업체, 용역업체, 수협임직원, 협회 회원 등으로 30명 선착순이며 신청 마감은 9월 9일까지이다.

이번 조사단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9박 10일 동안 일본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어촌어항들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2박3일 동안 시즈오카 현 아이즈 어항, 모치무네 어항, 카나가와현 미사키 어항, 요코

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등을, 유럽에서는 6박7일 동안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여 벨기에 뉴포트, 네덜란드 보멘달(어촌), 에이마우든 항, 이탈리아 살레노 다기능 어항 등을 시찰하게 된다.

한국어항협회는 해외선진국의 어항어촌에 대한 시책과 정비 및 환경실태를 직접 두루 살펴봄으로써 어촌어항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조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문의 : 한국어항협회 기술개발부
(02)3673-2851

어촌어항 특징

일본 : 아이즈 어항 - 양륙량 전국 제일의 특3종 어항으로 인근 심층수 시설 및 수산시험장이 있다.

모치무네 어항 - 습지를 굴착한 굴착식 어항으로 히로노 해안공원과 피셔리나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미사키 어항 - 연안어업의 근거지, 동일본 지방으로 활어 종합 중계기지 등 종합적인 어항이다.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 1,489척을 계류할 수 있는 동경인근의 대규모 마

리나시설로 쇼핑센터, 식당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벨기에 : 뉴포트(Nieuport) - 북유럽 최대규모의 요트항, 2006년도 세계요트대회 개최지

네덜란드 : 보멘달 - 독특한 건축물, 블레담 어부의 전통의상 등으로 유명한 관광어촌마을

에이마우든항 - 국영수산시장, 비료, 시멘트 공장 등이 있는 암프스테르담의 항구

이탈리아 : 살레노(Salerno) - 피셔리나 시설이 잘 정비된 다기능 어항

어항수요 및 지정 기준 산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한국어항협회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어항수요 및 지정 기준 산정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실시될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어항지정 기준 개정안'을 준비와 어항개발 관광 관련 시설 수요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토의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최익영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이인곤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장, 강덕출 경상남도 항만수산과장, 류간성 해인E&C 회장, 김형인 세일종합기술공사 부회장,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신승식 여수대학교 교수,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해양부, 준설토사 항만공사 재활용

해양경찰의 단속 등으로 인해 외해에 버려졌던 항만 준설토사의 재활용이 더욱 쉬워진다.

해양부가 준설토사에 대한 폐기물 규정을 개편하고 재활용을 위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설토사 활용 기준 및 처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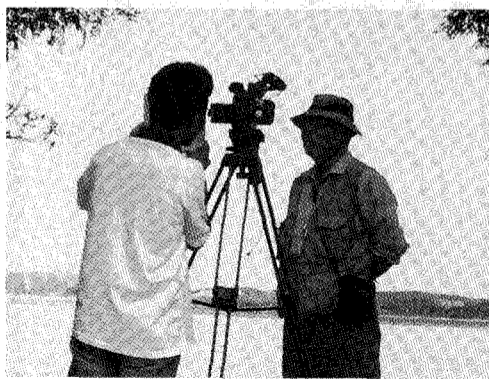
지침에는 양질의 준설토사를 해양폐기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타 폐기물과 분리해 규정하고 세부 재활용 방법과 기준이 담겼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으로 항만 준설토사는 폐기물로 규정됐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단속대상일 뿐 아니라 투기 관련 민원이 빈발해 대부분 건설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나온 준설토사를 별도 투기장이나 최대 120km 밖의 외해에 투기하고 있다.

매년 외해에 투기되는 준설토량은 평균 245만^m³(발생량 4,594만^m³)이며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운송비 등 비용만 연간 수백 억원에 달한다고 해양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양환경과 주도 아래 올해 하반기에 해저 준설토사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SBS 물은 생명이야! 장마철 유입 쓰레기 수거 사업 취재



인터뷰에 응답하고 있는 한국어항협회 최병원 차장

'SBS 시청자 제보 물은 생명이야' 제작팀은 지난 8월 22일 한국어항협회가 인천시로부터 수탁받아 강화군 염화수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마철 유입쓰레기 수거 사업'을 취재했다.

이 사업은 장마철 기간동안 한강에서 떠내려오는 부유쓰레기 등을 차단막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사업이다.